

이기는 삶

반대와 비판은 더없이 좋은 선물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때로는 친한 벗보다 유익할 때가 있다. 친구는 나의 실수를 묵인해 주지만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은 항상 나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나의 실수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설할 때 기뻐하고 칭찬할 때 슬퍼하라. 비난은 나를 공손함으로 이끌어주며 스스로의 해독제가 되어준다'고 말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나의 장점만 말하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고 나의 단점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라는 구절과 같은 내용이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장려하라

사모펀드 KKR 창업자인 헨리 크래비스는 "나는 내게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두려움 없이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실사 그것이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고 하였으며 피터 드러커 교수는 "리더는 칭찬받으면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어떤 결정이든 반대 논리를 퍼는 존재가 없애지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찬성의견보다는 오히려 반대의견을 장려하는 것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든 안전을 회외에 붙이는 것은 장점과 문제점을 공유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조직의 책임자는 "어떤 말이든 기탄(忌憚)없이 이야기하세요."라고 한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상황판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하고 만다. 리더가 어떤 말도 좋으니 하라고 했지만, 정작 리더가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안전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으면 먼저 발언권을 얻은 사람이 그 안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이후 그 발언에 대한 반대쪽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된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 자신이 낸 의견에 대하여 상대가 반박을 하면 자존심이 상하여 상대방의 말을 끊고 들어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게 되고 큰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

니라면 분명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다.

칭찬보다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 필요

조직의 책임자는 바로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듣고 싶은 것이다. 분명 먼저 의견을 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반대의견에 대하여 기본 나쁜 게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조직은 이러한 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민한 안전을 다룰 때는 서로의 관점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해서는 안된다. 토론의 주제가 되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할 뿐 결코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고 비난해서는 안된다. 비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공을 위한 열정이 강한 사람일수록 칭찬보다는 비판을 오히려 묘약으로 삼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나의 단점을 지적해 줄 수 있도록 단점을 지적해주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와 비판은 더없이 좋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의인에게는 생명의 빛, 죄인에게는 지옥 불

조금만 있으면 구세주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은 곡선광선이므로 그림자가 없고 어둠과 밤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죄가 티끌만큼만 있어도 뜨거워서 못 견디는 불인 것입니다. 그 불은 타서 없어지는 불이 아니고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이고로 죄인들은 뜨거워서 못 견디고, 고통만 당하지 죽어지지 않는 무서운 지옥의 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인 된 의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주는 빛이고로 그 빛이 임하기 시작을 하면 죄가 조금 남았다 하여도 죄가 소멸 되면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움직여라~

활동량이 줄면 근육부터 빠진다. 길었던 폭염도 사라지고 있는 지금! 관절의 이동 범위를 넓혀서 근육을 차곡 차곡

쌓아 보실까요?

동작①: 눈 뜨고 한쪽 다리로 서기= 다리틀 번갈아가며 1분씩 매일 3회.

동작②: 스쿼트= 5~15회 매일 3회.

동작③: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기= 10~20회 매일 3회.

동작④: 런지= 10~20회 매일 3회.*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격암유록 新해설 제104회

천계룡(天鷄龍)을 불각(不覺)하고 지계룡(地鷄龍)만 찾는다는 말인가?

勝運論(승운론)

非山非野不利水 비산비야불리수에
天神加護吉星照 천신가호길성조로
東西運行往來 동서운행왕래하니
大白金星曉星照 대백금성효성조라
伽伽靈室桃源境 가야영실도원경은
地上仙國稱號 지상선국칭호로서
最好兩弓木 최호양궁목인오로
十八術誕生 십팔복술탄생하니
三聖水源三人之水 삼성수원삼인자수
羊一口 양일구의 又八 우팔일세

산이나 들도 아니며 물이 있는 곳(강, 바다)도 생명을 보전하는데 이롭지 못하느니라. 천신(하나님)이 가호하고 길성(吉星=두우성=복두질성-정도령)이 비추는 곳이니라. 동(목운)에서 서(금운)로 이어가나니 크게 빛나는(무극대도의 완성) 금성이요 새벽별이라. 밀실에 은거 수도하여 무극대도를 완성하였나니 가야 영실이요 도원경이라 지상천국을 말함이니라. 가장 좋은 궁궁 심승 하나님은 묵인으로 박(朴=十八術誕生십팔복술탄생)씨 몸을 입고 탄생하니 삼성수원 즉 삼성(三聖)의 감로수의 근원을 상징하는 삼인지수(三人之水=태) 양일구의 우팔(羊一口의 又八=홍선)일세. 전도관 박태선(朴泰善)장로의 존함(尊銜)이다.

修道先出容天朴 수도선출용천박을
世人不知 세인부지모르거든
天崩地拆素砂立 천붕지타삭소사립을
十勝人 심승인계 問疑 문의하소
萬邦之中避亂處 만방지중피란처를
萬歲先定 만세선정하여두고
白面天使黑鼻公자 백면천사흑비공자
嶺上出入大將 영상출인대장으로



三聖一合神人動作 삼성일합신인동작으로
任意出入一天下 임의출입일천하에
石白海印天權 석백해인천권으로
天下消蕩降魔世 천하소탕강마세를
世人嘲笑譏弄 세인조소기롱이나
最後勝利弓 최후승리궁공일세
彌勒世尊無量之意 미륵세존무량지의
宇宙之尊彌天 우주지존미천이요
着金冠 착금관의 馬首丹粧 마수단장
飛龍馬 비룡마의 勒馬 늑마로서
儒佛仙運三合一 유불선운삼합일의
天降神馬彌勒 천강신마미륵일세
馬姓鄭氏天馬 마성정씨천마오니
彌勒世尊稱號 미륵세존칭호로다

도를 뒤야 먼저 나온 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박(박태선)씨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거든 하늘이 무너져도 소사에서 승리의 제단을 세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 심승인(정도령)에게 문의하소. 하나님이 만세 전에 세계만방 가운데 피란처를 미리 정해 두었나니 백면천사 흑비공자(白面天使黑鼻公)는 마귀를 이기신 천하무적 장수로서 삼일일체(삼일일체)의 신인(神人)이며 완성자(完成者)가 되어 천문(天門)과 지호(地戶)를 출입하며 전하를 마음대로 움직이느니라. 소사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관능의 징표인 감로해인을 임의용지(任意用之)하시어 천하 세상의 마귀를 항복 받아 소탕하는

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심승 하나님이니라.

우주의 지존이신 미륵 세존의 뜻은 헤아릴 수 없으니 하늘 끝까지 마침이요 말마리에 금관을 씌워 단장한 비룡마(飛龍馬)는 미륵 세존을 상징한 말이니라. 유불선의 삼도(三道)를 하나로 합하기 위해 천신이 하강하신 비룡마요. 미륵불일세. 하늘의 성은 정씨이며 천마(天馬)이니 미륵 세존 친호로다.

天縱大聖鷄龍 천중대성계룡으로
蓮花世界鄭氏王 연화세계정씨왕을
平和相徵檄柿字 평화상징감시자로
柿謀者生傳 시모자생전했더니
暮春三月龍山 모춘삼월용산으로
四時不變長春世 사시불변장춘세라
鄭氏國都何處地 정씨국도하처지가
鷄鳴龍叫新都城 계명룡규신도처오
李末之後鄭都地 이말지후정도지는

清水山下千年都 청수산하천년도라
物欲交蔽訪道君子 물욕교폐방도군자
井中之蛙智識 정중지와자식으로
天鷄龍 천계룡은 不覺 불각하고
地鷄龍 지계룡만 찾던말가

하늘이 세운 대성인이며 계룡으로 연화세계(극락)의 정씨 왕을 평화의 상징인 감람나무 감나무로 표현하였나니 감(감)나무를 피하는 자 영생을 얻는다고 전했다네. 늦은 봄(모춘=춘말=진) 3월(진) 용산(龍山)인 정도령의 천지공사로 사계절 변함없는 장춘세계(長春世界=지상천국)가 건설되느니라. 정도령이 세우는 하늘나라 도읍지는 어디인가? 닭이 울고 용이 울부짖는 즉 계룡이 새 하늘 새 땅의 도읍처(都邑處)요 이씨 조선이 끝난 후 정도령의 하늘나라 도읍지는 많은 물 즉 생명수(감로수)가 흐르는 청수산 아래에 도읍을 정해 천년왕국을 건설하느니라. 모두 영적인 의미이며 정도령, 계룡, 청수산이 다 같은 뜻이다. 도를 찾는 군자들이 물욕에 눈멀어 무물 안 개구리와 같은 짧은 지식으로 하늘의 계룡을 깨닫지 못하고 땅의 계룡만 찾는단 말인가? 세상 땅의 이치가 아닌 하늘의 이치로 계룡(정도령)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생명샘

정도령과 활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남녀 양궁 단체전이 동반 금메달을 사냥했다. 활의 민족이라 불리는 우리나라는 이로써 남자팀은 올림픽 연속 2연패를, 여자팀은 올림픽 9연패를 달성했다. 개인전에서는 안산 선수가 솟아프로 극적인 우승을 감아주었다. 우리민족은 왜 올림픽에서 유독 활이 강할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유전자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활쏘기는 우리민족의 생존본능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 이주하기까지 북방 초원을 말을 타고 누비며 살았던 기마민족이라고 한다. 중국은 우리를 동이(東夷)라고 했는데 이(夷)가 큰 대(大)와 활 궁(弓)을 합자(合字)한 것이니 동쪽에서 활을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뜻이다. 고구려 유물 무용총 수렵도에서도 초원을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사냥을 하는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으니 우리민족이 활을 얼마나 가까이 했나 잘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사용한 활(國弓)은 오늘날 올림픽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궁과 다르다. 양궁(洋弓)은 서양의 활로서 D자형인 반면 국궁(國弓)은 B자형이며 양궁보다 크기가 작지만 사커리는 훨씬 길다. 양궁의 최대사거리 90미터이지만 국궁은 145미터로서 배나 길다.

활과 화살은 전쟁의 필수물자였고, 국궁은 신분상승을 위한 최선의 무예였다. 조선시대에는 문과나 무과시험에 활쏘기가 들어있어서 활을 잘 쏘아야 과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고구려의 동명성왕,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활을 잘 쏘았다고 하는데 이를 보면 활쏘기는 출세의 방편임을 잘 알 수 있다.

정도령을 활로 상징한 의미

격암유록은 대한민국을 구원할 정도령을 활을 의미하는 궁(弓)으로 표현했다. 쌍궁(雙弓), 배궁(背弓) 등등이 그것인데 왜 많고 많은 글자 중에 활을 뜻하는 궁을 사용했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활은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고대사회에서 활을 잘 쏘는 무사가 동명성왕이나 조선의 태조 이성계처럼 대장(大將)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정도령은 마귀를 완전히 박멸소탕하는 전지전능의 구세주의 영이자 무적장수이다. 남사고 선생이 당시에 가장 강력 한 무기 중의 하나인 활을 사용하여 정도령 구세주를 상징한 것은 정도령이 마귀를 죽이는 가장 강력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매섭게 날아가 비수처럼 적의 가슴에 꽂히는 활처럼 마귀를 박멸소탕하는 천군 천사가 되자.*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김해제단 : (055)327-2072	사천제단 : (055)855-4270	충주제단 : (010)9980-5805	大阪祭壇 : (06)6451-3914
수원제단 : (031)236-8465	대구제단 : (010)6530-7909	순천제단 : (010)3661-9025	양평제단 : (010)2945-8254	
안성제단 : (031)673-4635	마산제단 : (055)241-1161	정읍제단 : (010)8628-2758		London : (0208)894-1075
평택제단 : (010)7516-1591	진주제단 : (055)745-9228	군산제단 : (063)461-3491		Sydney : (006)0415-727-001
부산제단 : (051)863-6307	진해제단 : (055)544-7464	대전제단 : (042)522-1560	橫濱祭壇 : (045)489-9343	
영도제단 : (010)6692-7582	영천제단 : (054)333-7121	청주제단 : (010)5484-0447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